

# 계양~강화 고속도로 조속 추진 및 김포 구간 지하화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김 기 남 의원)

의안 번호	제 호
----------	-----

발의년월일 : 2025. 7. .

발 의 자 : 김 기 남 의원 외 13명

## 1. 제안이유

-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북부의 광역교통망 확충과 지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확정 지연으로 착공이 지체되고 있음.
- 특히 김포시 4공구 중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를 통과하는 구간이 지상 고속도로로 계획되면서 도시 단절, 생활권 분리, 주거환경 악화 등 중대한 도시계획적 문제가 우려됨.
- 이에 해당 구간의 전면 지하화와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김포 도시구조의 연속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건의함.

## 2. 주요내용

- 계양~강화 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 촉구 : 총사업비 확정 지연 해소 및 2025년 내 실시설계 완료를 위한 행정절차 신속 이행 요구
-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통과 구간의 전면 지하화 요청 : 지상 도로 계획 철회 및 지하화 설계 반영, 상부 공간의 공공적 활용 방안 마련 요구
- 지하화 추가 비용 분담 및 국비 지원 방안 마련 촉구 : 관계기관 간 분담 구조 조속 확립,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병행 추진 요청

3. 송부대상 :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한국도로공사, LH, 경기도, 경기도  
의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4. 건의문(안) : “별 첨”

# 계양~강화 고속도로 조속 추진 및 김포 구간 지하화 촉구 건의안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망의 핵심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확정 지연으로 인해 기본설계 이후 실시설계와 착공이 중단된 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절차 지연이 아니다. 김포 구간 지하화 요구에 따른 설계 변경 가능성, LH와 한국도로공사 간 재정 분담 미합의, 재정 우선순위 조정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개선이 정체되고,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의 안정적 정착도 위협받고 있다. 더는 미룰 수 없다.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중심부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구간의 지상 건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도시는 단절되고, 생활권은 분리되며, 주거환경은 훼손되고 도시 가치는 하락한다.

실제 사례로, 화성 동탄2신도시는 지상 고속도로로 인한 도시 양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뒤늦게 지하화 공사를 진행하면서 막대한 추가 비용과 시간이 발생했다. 인천 경인고속도로 역시 도심 단절 문제로 전면 지하화를 공식 추진 중이다. 김포는 이와 같은 전례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전면 지하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추가 비용 4,000억 원은 단기 부담일 뿐이며 장기적으로는 도시 가치 회복과 환경·소음 문제 해결 등에서 더 경제적이다.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기관 간 협조와 재정 분담 의지다.

이에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총사업비를 조속히 확정하고, 2025년 내 실시설계를 완료하며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라.

하나. 한국도로공사와 LH는 김포시 4공구 중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를 통과하는 구간을 전면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 활용계획을 포함한 설계 변경을 즉시 반영하라.

하나. 관계기관은 지하화에 따른 추가 사업비 분담 구조를 조속히 마련하고, 국비 지원 등 재정지원 방안도 병행 추진하라.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김포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국가사업이다. 획일적인 도로 계획을 넘어 도시와 인프라가 공존하는 방향으로 조속한 추진과 전면 지하화가 필요하다. 본 건의가 반영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 7. 21.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